

횡단보도까지 덮친 교통 참사...“안전 멈췄다”



광주·전남에서 매년 2000건이 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마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시행과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지역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2358건이 발생해 87명이 숨지고 2367명이 다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1088건의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1114명이 부상했으며, 전남에서는 1270건의 사고로 64명이 숨지고 1253명이 다쳤다.

보행자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3년 2548건, 2024년 2418건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각각 81명과 90명에 달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횡

매년 2000건 사고 발생...사망자 10명 중 7명 고령자
우회전 일시정지·캠페인에도 운전자 법규위반 여전

단보도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는 광주 995건, 전남 1461건 등 모두 2456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광주에서는 14명, 전남에서는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반경 100m 안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7건 이상 발생한 사고 다발지역이 모두 11곳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방면 △동구 학동 전대병원 응급실 앞 교차로 △서구 치평동 타임스타워 부근 △서구 화정동 광주지방국세청 우리누리 어린이집 부근 △남구 월산동 바삭치킨 부근 △북구 각화동 문흥지구입구 교차로 △북구 우산동 사랑이네생태한마리 부근 △북구 두암동 브레드세븐 두암점 부근 △북구 양산동 명문약국 부근 △북구 두암동 갯마을 부근 △광산구 송정동 끝단지약국 부근 등이다.

전남에서는 모두 22곳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 △목포 상동 공단삼거리 △목포 버스터미널 교차로 △여수 중앙동로터리 △여수 여객선터미널

입구 교차로 △여수 교통사거리 △여수 한재사거리 △광양읍 세종약국 부근 △고흥읍 읍내파출소 부근 △순천 매곡동 행림당약국 부근 △장흥읍 신화약국 부근 △합평읍 이기세약국 부근 등이 포함됐다.

보행자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이 컸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는 보행자 사망자 60명 가운데 38명(63.3%), 전남에서는 198명 가운데 145명(73.2%)이 65세 이상이었다.

광주·전남 전체 보행자 사망자 258명 중 183명이 고령자로,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정부는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도 고령 보행자를 대상으로 야광조끼와 야광지팡이를 보급하고 마을회관 중심 교통안전교육과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



광주경찰청은 광산구 수원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진행했다.

해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광 반사지 보급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법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광주 84건, 전남 72건이었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는 88명이 다쳤고, 전남에서는 2명이 숨지고 7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역시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광주 보행자 교통사고 3417건 가운데 2292건(67%)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이었다. 전남도 전체 3907건 가운데 2761건이 같은 원인

위반과 신호위반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회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과 운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은 차량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생명 보호 장치”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45	달출	23:31
해질	19:31	달몰	13:19



광주	☀️	26~37
목포	☀️	26~35
여수	☀️	26~36
순천	☀️	26~36
구례	☀️	26~36
광주	☀️	26~34
개남	☀️	26~39
함도	☀️	26~33
목신도	☀️	26~33
고봉	☀️	26~34
진도	☀️	26~34

목포	밀물 (고)	06:56 / 19:49
여수	밀물 (저)	12:19 / ---:---
	밀물 (고)	01:19 / 14:21
	밀물 (저)	07:41 / 20:15

‘2027년 충장축제’ 전국민이 주제 정한다

31일까지 설문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2027년 제24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주제를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기 위해 3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동구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시민 참여형 주제 선정 방식을 올해도 이어가며, 시민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네이버폼 (<http://naver.me/GdTfdxSr>) 또는 충장축제 누리집 (<http://recollection.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시민 참여를 한층 확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군을 발굴한 뒤, 8월 말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3개의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충장축제위원회와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주제를 확정하고, 선정 결과는 올해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1일 발표한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광주 공립교사 채용, 내년에도 따로 시행

전남 554명·광주 74명...세부 시행계획은 내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교사 임용시험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광주와 전남을 분리해 시행한다.

광주특별시장교육청은 5일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 시험 일정을 사전 예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전남 554명, 광주 74명 등 총 628명으로, 지역별 모집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 56명(전남 50명·광주 6명), 초등학교 교사 165명(전남 162명·광주 3명), 특수학교 교사 32명(전남 21명·광주 11명) 등 유·초·특

수 분야에서 모두 253명을 선발한다.

중등은 교과 교사 258명(전남 240명·광주 18명), 특수(중등) 교사 24명(전남 15명·광주 9명), 비교수교과 93명(전남 66명·광주 27명) 등 31개 과목에서 총 375명을 뽑는다.

최종 선발 과목 등 세부 사항은 오는 9월 9일(유·초등)과 30일(중등) 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안내될 예정이다.

유·초등 교사 임용시험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 실시된다. 중등 교사 임용시험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차 필기시험은 11월 28일 치러진다.

김인수 기자 joinus@



“지원한 열음생수 받아 가세요” 광주시동구세마회(회장 김대영)는 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교차로에서 폭염예방 수칙 안내와 온열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열음생수 약1000여개를 나눠주는 건강세마을가꾸기운동으로 ‘빛고을 동구 응달샘’을 실시했다. ‘빛고을 동구 응달샘’ 무료 생수 나눔은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순관) 및 빛고을신협(이사장 이주열)과 동부신협(이사장 구희성)의 후원으로 축서기 동안 매일 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학생복지, 재원 확보 때까지 각각 운영

지원 대상·지급 방식 달라...통합 필요예산 연 1620억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광주 학생꿈드림 지원 대상·지급 방식을 확대했으며 올해 사업비를 하년도의 학생복지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광주특별시장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2024년 3월 도입됐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만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월 10만원, 중학생 월 5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진도군은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올해 사업비는 830억원이다.

광주 학생꿈드림은 2024년 중·고3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확대됐다. 중학생은 연 60만원, 고등학생은 연 100만원 한도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연 3차례 바우처로 지급한다. 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다.

큰 문제는 지원 체계 차이다. 전남은 초

등학생을 지원하지만 일반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광주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지급 방식도 전남은 매월 정액, 광주는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뒤 연 3회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주와 전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6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두 사업 예산 1330억원보다 약 300억원이 더 소요된다. 교육부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시장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검토해 2027년 통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특별시장 동구, 지한초교 통학로 개선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지한초등학교(내남동 299-5)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성을 강화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교통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교차로는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습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고 위험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폭 2~3m 남짓한 교통신 중앙에 전신주까지 설치돼 여러 명이 동시에 대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생과 주민들은 교통습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기 일쑤였으며, 차량역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서행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지한초 주변에는 구립도서관 ‘책정원’과 아파트 단지, 유치원, 요양병원 등이 밀집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주민과 고령층의 통행도 상당했다.

이에 동구는 지난 3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을 확보, 안전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주민들, 지난해 11월 개선 요구 교통섬 철거·대각선 횡단보도 조성...캠페인 등 병행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후 광주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한국전력, KT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졌다.

동구는 이달까지 교통습을 철거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한편 전신주와 신호기를 이설한다. 또 보도를 확장하고 방호울타리 설치, 아스콘 재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보행자 먼저 살피기’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도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다”며 “내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는 마음으로 공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한초등학교(내남동 299-5) 앞 교차로.

추진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경 기자 sty1235@